

성섭취(extra-hepatic activity)를 볼 수 있다. 또한 이 병에 있어서는 자주 간문맥혈류에서 생기는 혈액학적 변화로 말미암아 식도정맥류가 나타난다.

정맥류의 파열에 의한 과량출혈은 간경변증에 의한 가장 중요한 치사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는 임상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맥류를 진단하고 그 예후를 알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와같은 해부학적 진단 및 병태생리학적예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준 또는 소견을 찾아내는 것은 임상적으로 꼭 뜻있는 일이다. 이러한 처지에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간주사소견과 식도정맥류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보았다.

연구대상으로는 과거 2년동안 가톨릭대학 의학부부속 성모병원에서 간경변증으로 확진된 환자 200 명중에서 ^{198}Au 를 사용한 간주사검사와 식도조영검사를 같이 시행했던 34 예를 뽑았으며, 방법으로는 간주사소견을 분석 검토하는 한편 각 주사소견과 정맥류의 발생 빈도에 대하여 양적 질적 상관관계를 따졌다.

1. 정맥류를 가진 환자 34 예중 31 예 (91%)에서 주사상 간의 축소를 나타냈다.

2. 정맥류와〈얼룩이〉와의 상관을 보면 예기했던 바와는 달리 73.6%에서 주사상에 전혀 〈얼룩이〉가 없거나 또는 경한 〈얼룩이〉가 있는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3. 한편 정맥류와 비장섭취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73.6%에서 비장의 섭취가 나타났으며 비장섭취의 정도와 정맥류의 발생빈도와의 사이에도 아무런 유기적 관련성이 없었다.

4. 끝으로 정맥류와 비종대의 관계를 볼 때에 비장섭취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종대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정맥류 79.4%에서 비종대가 관찰되었다.

이상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정맥류는 대부분의 경우 간의 축소 및 비장섭취 또는 비종대를 동반하고 있으며 흥미있는 사실로는 〈얼룩이〉가 없거나 경한 환자에서 훨씬 많이 발견되었다.

24. 아메바성 肝농양에서의 교양

^{198}Au 금제거울 치의 동태

가톨릭대학 의학부 방사선과

박용희 · 안재성 · 신경섭

Trace-Dose Colloidal ^{198}Au Clearance in Amebic Abscess

Yong Whee Bahk, M.D., Jae Sung Ahn, M.D.
and Kyung Sub Shin, M.D.

Department of Radiology, St. Mary's Hospital,
Catholic Medical College, Seoul, Korea

입자 크기가 비교적 고른 교양 ^{198}Au 의 말초혈액에서

의 제거율 측정은 간혈류량의 동태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교실에서는 과거 여러해 동안 이 방법을 이용하여 간경화, 장티브스 등 몇가지 질환에서의 간혈류동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아메바성 간농양의 초기에 이 제거율이 촉진된다는 사실도 밝힌바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아메바성 간농양 환자에서 보는 이같은 제거율 치의 촉진이 병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침검, 침자 또는 개복에 의해서 진단이 확정된 아메바성 간농양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하여 1주내지 7주간격을 두고 최소한 두번이상 간주사 검사와 혈중 제거율치 측정을 되풀이 하여 특히 혈중 제거율치 동태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결론>

9예중 1예를 제외한 전예에서 농양이 치유되어가면서 혈중제거율치가 뚜렷하게 연장되었다. 이 중 세번 검사를 받은 3예에서 연장된 제거율치가 다시 정상선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관찰결과는 아메바성 간농양의 경우 농양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에는 간혈류가 증가 (제거율의 단축) 하나 침자 등에 의해서 배농이 되고 또 항 아메바치료제에 의해서 치유되어 가면서 간혈류는 일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주째 까지이며 그 후 혈류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 오는 것 같다(제 1도)

